

지역 소식통

고창소금전시판매장 개장

고창군이 기존 소금전시판매장의 민간위탁을 통해 고창 전 일원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심원 염전부지에 들어설 생태체험학습장과 함께 국내 최고의 소금산업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소금전시장(선운산도립공원 관광단지 내) 개장식을 열었다. 개장식에는 유기상 고창군수와 최인규 고창군의회 회장의 고창천일염 생산기공회 의회 감사인사 대표와 관내 소금 생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민선 7기 유기상 고창군수는 취임 직후 고창천일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고창소금전시판매장의 민간 위탁을 진행했다. 군은 2018년 11월 민간위탁 추진 결정 후 최근 '고창천일염 생산기공회의' 구성과 정식 법인 설립등기를 마무리하고 소금전시관을 재단장했다.

소금전시관에는 고창에서 생산된 천일염과 죽염, 황토소금, 가공소금(복분자소금, 허브솔트 등) 소금 가공 제품들이 전시·판매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정읍시, 70만원씩 지원

정읍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 통학, 통근 등 전세버스 운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70만원으로 총 9,400만원(도비 2,700만원, 시비 6,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전북도 내 타 시군보다 20만원 높은 금액으로 시비 2,700만원을 추가 투입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일인 지난 2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60일 이상 근무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34명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생했다” 마주보며 위로

정읍 양지마을, 이동제한 풀려 '14일만의 일상생활 복귀' 시, 주민 혈압 혈당 등 기초건강·우울척도 검사 등 진행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 이동 제한 조치에 들어갔던 정읍시 정읍면 양지마을 주민들이 격리 14일만인 19일 일상생활로 복귀했다.

주민들은 서로를 마주 보며 “고생했다”는 말로 그동안의 아픔을 위로했다.

시에 따르면, 이동 제한 이후 현재까지 양지마을 주민과 주민 접촉자 264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마쳤고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 관련해, 유진섭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양지마을 현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따른 이동 제한 행정명령 해제를 발표했다. 해제와 동시에 마을로 통하는 5곳의 길목에 설치했던 진·출입 통제선

은 철거됐고 경찰관과 보건당국 관계자들도 모두 철수했다. 시는 이동 제한 해제 후 주민들의 혈압과 혈당 등 기초건강 검진과 함께 우울척도 검사 등 건강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먼저 전북 대병원과 군산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확진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이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방역 당국을 믿고 협조해 주신 양지마을 주민들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한 양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마음과 정성을 보내준 시민들과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들을 돌봐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에 대한 인사도 빼놓지 않았다.

시는 이동 제한 조치 후 양지마을 주민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마스크와 소독제를 비롯해 반찬류와 생필품까지 꼼꼼하게 챙겼고, 지역농협과 함께 농작물 수확을 도왔다. 또, 현장 원스톱 민원실 운영과 함께 고령자와 지병 주민의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공중보건의와 응급차량도 배치했다.

양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힘을 모아준 시민들의 노력도 돋보였다. 일반 시민들로 이뤄진 봉사단은 10일간에 걸쳐 총 1,000여개의 도시락과 사골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또, 성금과 물품 지원 등 37건의 운정이 이어지며, 양지마을 주민들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됐다. 시는 이러한 시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1인당(26세대 44명)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에이치엘프라퍼티·바이오텐 ‘맞손’

글로벌 인재·기업 교류 등

(주)에이치엘프라퍼티(대표이사 박춘성)와 바이오텐(주)(대표이사 김영철)은, 16일 바이오텐(주) 본사(전북 정읍시 소재)에서, 바이오 생명공학 제품 전반, 글로벌 진출에 관한 공동연구 및 업무추진/운영, 글로벌 인재 및 기업 교류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을 기반으로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 바이오 생명공학의 글로벌 동반성장 을 선언했다.

(주)에이치엘프라퍼티(HIL Property Co., Ltd)는 대한민국 서울에 본사를 두고, 방글라데시 다카에서는 유기농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과 기업을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는 해당국의 기업컨설팅 및 융복합 산업에 관한 해당국 내 기관과 기업들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푸드의 국내 푸드와의 협업 체계 구축과 더불어, 프리미엄 브랜드

를 생산하는 '브레드 팩토리 앤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바이오텐(주)은 의료체계를 기반으로 약물의 흡수력 및 지속성을 증가시키는 난용성 가능물질의 수용화 및 효능

검증 원천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생명공학 전문 연구개발 회사이며, 기존의 약물 고도화 기술 개발을 통한 건강기능성식품, 코스메슈티컬화장품, 동물 의약품, 의약품 뿐만 아니라 사료첨가제, 천연물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바이오 생명공학 기업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주)에이치엘프라퍼티(대표이사 박춘성)와 바이오텐(주)(대표이사 김영철)은 16일 바이오텐(주) 정읍 본사에서 글로벌 인재 기업 교류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부안상설시장상인회 '부안 설 숯어 축제' 취소

부안상설시장상인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제11회 부안 설(雪)숯어 축제를 취소했다.

상인회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격론 끝에 오는 12월에 개최하기로 한 제11회 부안 설(雪)숯어 축제를 전면 취소하고 와글와글시장가요제는 비대

면으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상인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제 개최 시 불특정 다수의 외부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지역감염 우려에 따라 청정부안을 사수하기 위해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호 부안상설시장 상인회장은 “제11회 부안 설(雪)숯어 축제를 개최하지 못해 매우 아쉽지만 오는 12월부터 숯어축제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부안상설시장을 찾아 숯어의 풍미를 만끽했으면 좋겠다”며 “내년 부안 설(雪)숯어 축제를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 많은 관광객이 부안을 찾아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박현규 부안군 부군수는 취임 후 뛰어난 업무적 판단 아래 부안군과 전북도의 기교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 지역발전의 발판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부안 지역발전 마중물 최선”

박현규 부군수 취임 100일

지난 7월 1일 취임한 박현규 부안군 부군수가 취임 100일 동안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박현규 부군수는 전주 출신으로 전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1992년 공직에 입문해 전북도 정책기획관실 정책개발담당, 기획관실 국가예산담당, 기획조정실 챔버추진단장, 혁신성장정책과장 등을 역임하고 부안군 부군수로 취임했다.

박현규 부군수는 취임 후 뛰어난 업무적 판단 아래 부안군과 전북도의 기교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 지역발전의 발판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특히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을 중시하며 전북도 기획부서에 만 10여년 이상 근무한 정통 행정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력을 십분 발휘해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실제 박현규 부군수는 취임 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 10여 차례나 전북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도사업 주요사업장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이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워라벨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안자연마당과 부안자연정원, 신운천 생태하천 등도 직접 둘러보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박현규 부군수는 “어느덧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는지도 몰랐다”며 “그만큼 부안에서의 근무가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에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부안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관광자원 등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매력 넘치는 곳이라며 “그동안 쌓은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안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대구서 기록과 지역출판 중요성' 강연

유기상 고창군수가 지난 1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열린 '2020 대구수성 한국지역도시전'에 초청돼 '기록과 지역출판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직전 개최도시 단체장 자격으로 강연에 나선 유기상 군수는 100년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동리 신재효 선생의 '관소리 사설본(청계본) 발견과 '한반도 첫수도 고창 기네스' 등의 출간을 소개했다.

유기상 군수는 “관소리 청계본이 관소리는 물론 그 시대의 언어와 언어와 생활풍습까지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듯이, 기록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를 이어준다”고 강조

했다. 이어 “고창군은 앞으로도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군민들이 인문적 만남을 통해 누구나 함께 읽고 소통하며 인문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5월 군단위 최초로 한국지역도시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저력을 과시했다. 도시전 동안 고창의 조용한 여춘마을은 거대한 도서관으로 변했다. 관람객들은 마을 고상, 마당 한편, 오래된 이야기를 간직한 마을정자에서 지역 책을 읽으며 토론하고 지역뮤지션의 공연을 즐겼다. /고창=김영식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